



◇서암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무위정사. 기건물처럼 대충 지은 집이지만, 어느 곳에 머무든 그곳이 곧 수행 도량이다. 부처님의 땅으로 여기는 수행자의 면모를 느끼게 한다.

행이자 보시한 사람에게는 배품의 공덕을 주는 보살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수행자는 얻어먹는 것만으로도 능히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떼뭇이 얻어먹고 얻어먹음으로써 오히려 존경을 받는 것이지요.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흉내라도 내야 해요. 부처님의 행과 동떨어진 것은 불교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절 저 절 파당을 짓거나 절집에서 재산을 쌓는 일 같은 건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른바 걸어놓은 종단까지 치면 100개가 넘어요. 이런 무얼 의미하느냐. 옛날 구산 선문과 같은 사상적 갈래가 아니라 분란이요.

이제 불교는 새출발을 해야 합니다. 출세간법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도 못해서 세간법에 의지해 재관을 하는 추태는 다시 없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체중생을 구제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누구한테도 들지 않습니다. 인천사라는 사람들이 관청 사람한테 찾아가 이 종이 잘했소 저 종이 잘했소 한다면 누가 그를 스승으로 여기겠습니까.

부디 부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 1600여년에 걸친 아름다운 불교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는데 모두가 일심으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한국 불교는 자기 구제부터 확실히 하는 것으로 새로이 시작해야 합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어야 새 살이 나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온갖 호강은 다 하는 자세로는 중생 구제는 커녕 자기 구제도 못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과거도 지금도 대부분의 승려들은 공부 잘해요. 항상 일부가 문제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승려들은 그런 꼴이 보기 싫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교는 발전합니다. 진짜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러한 행위만으로도 중생들을 이롭게 합니다.

—스님께서는 오랫동안 조실로 계셨던 봉암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것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을 법한데요.

▲사연이 많았지요. 봉암사마저 관광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 평생 안 가 본 청와대도 가 보고 간살부도 가 보고 국회도 가 보고 그랬어요. 가서 그랬어요. 천년 고찰을 관광지 만들어서 도인 못 살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했지요. 그래서 도립공원이란 핑가로 지정하기로 결정된 걸 뒤집었어요. 좋은 소리는 종칼로도 누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찰은 수행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에 대한 예경의 공간이기도 하고 중생 교화의 공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찰을 봉암사처럼 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라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도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한국 불교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절에 들어가는 데도 극장 가듯이 돈 내고 들어가게 해서는 안되요. 사찰 재정도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부처님 세상에 못 찾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되요.

—스님 말씀대로 조계종단의 잦은 내용으로 인한 불교의 이미지 실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안정을 회복하고 있고 대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찰이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서 한 예이고 말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당부 말

신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 줄 수 없어요. 천하의 사람이 다 칭찬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에 터럭 하나 보낼 게 없고, 천하의 사람이 다 자신을 욕한다고 해도 터럭 하나 뽀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도 자신의 인생을 간섭할 자는 없어요. 이걸 모르고 정신 없이 살면 중생이고 똑똑히 알면 부처예요. 결국 저 금을 철한 불상이 부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깥으로 해매고 찾고 하면 어지러워집니다. 자기 마음 찾으면 성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필 구제 하겠다는 중, 광고 문구 같은 도인 흉내 같은 건 내지 마시고,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는 겁니다.

오늘의 인류 문명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입자나 원자나 소립자나 하는 현대 물리학이



◇모든 세간사를 벗어난 삶을 상징하듯 건물 앞에 내걸린 무위정사 편액. 서암스님께서 직접 쓴 글씨로 만들었다.

“ 슬 한 마디 일러 주십시오. ”

▲거듭 말하지만 불교 만큼 간명한 진리는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우주 만물을 창출해 낸 근본지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세요. 그래야만 특별히 살 수 있습니다. 조물주 신이니 하는 낱빠진 소리 하지 말고, 이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밝게 다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주의 주인공이요, 만물만생이 절대 평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부처님 한분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절대 평등해서 다 본래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본래 차별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도리를 제대로 알아야 자신이 자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 출가 수행자는 떼뭇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 일 말아야 ”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

지옥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정스님 ⑤

“ 낮에는 앞산 산색(山色)에 눈을 씻는다. 꽃이 피고 녹음이 짙어지고 있다. 아, 시원해라. ”

“ 밤에는 불일암 대밭을 뒤훑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귀를 씻는다. 때로는 우우우 처너 귀신 울음소리, 호호호 총각귀신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은 파도가 되어 밤새 철썩철썩 소리를 내기도 한다. ”

“ 고요한 달밤에는 내소사 해안(海眼) 스님의 시를 읽는다. ”

“ 고요한 달밤에 거문고를 안고 오는 벗이나 단소를 쥐고 오는 벗이 있다면 굳이 술을 골라 곡조를 아니 틀어도 좋다. ”

“ 이른 새벽에 홀로 앉아 향(香)을 사르고 산창(山窓)에 스며드는 달빛을 볼 줄 아는 이라면 굳이 불경(佛經)을 아니 배워도 좋다. ”

“ 저문 불발 지는 꽃잎을 보고 ”

“ 낮엔 앞산 산색에 눈 씻고 ”

“ 밤엔 대밭 바람에 귀 씻고 ”

“ 귀족도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라면 굳이 시인이 아니라도 좋다. ”

“ 구름을 찾아가다가 바람을 베고 바위에 기대어 잠든 스님을 보거든 굳이 도(道)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좋다. ”

“ 해 저문 산에서 나그네를 만나거든 어디서 온 누구인지 물을 것이 없이 굳이 오고가는 세상사를 들추지 않아도 좋다. ”

“ 이 시는 절 객실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스님이 운문을 하시고 내가 이를 받아 썼다. 원문을 쓴 분은 물론 금강경 해설의 삼대 법사의 한 분이신 해안 스님이시다. 금강경 해설의 삼대 법사가 어느 분이냐 하면 해안 스님, 백성욱 박사, 석해탈 스님. ”

“ 처음 이 시의 원문을 접한 곳은 선운사 객실. 낯선 산사의 객실에 들면 시간이 쫓겨간다. 읽을거리도 없고 일거리도 없다. 그냥 밥 때 밥 먹고 잘 때면 자는 것이다. 세상 편하고 걸림이 없다. ”

“ 법정스님이 이 시를 보고, ”

“ 너무 한문투야. 시를 좀 손질하는 게 어때? ”

“ 하시기에 내가 우선 소리내어 읽었다. 스님은 한 구절이 떨어질 때마다 수정을 하셨다. 운문을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다른 이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 이 시를 신문에 실어요. ”

“ 불일회보에는 당시 편집 일을 맡고 있

던 현장 스님의 눈에 띄어서 실었는데 크게 호응을 받았다. 여기저기서 수 천장씩 찍어 나눠 가지며 출격(出格)장부의 풍류 시를 함께 음미하였다고 할까. ”

“ 지금은 수도를 놓고 있지만, 그때는 우물물을 썼다. 국수를 삶아서 구시통에서 씻다가 몇 가래를 입안에 넣고 쪽 빨아먹으면서. ”

“ 국수 맛은 막 씻어서 이렇게 먹는 맛이 제일이야! ”

“ 하고 스님이 시범을 보시면 나도 따라서 국수 몇 가래를 입안에 넣고 쪽쪽 빨아먹었다. ”

“ 뽕자리를 깔고 동근 상을 펴놓고 국수를 먹는다. 저녁 식단은 대개 분식 종류. 그리고 나서 따끈한 홍차를 마신다. 커피도 마신다. 녹차는 대개 오전과 점심 때에 마신다. ”



그림·문병성

“ 공양주 초대는 노보살님. 비가 오는 밤 ‘대밭 귀신소리’에 무서워서 밤중에 스님에게 하소연을 하다가 구종만 들고 울며 떠났고, 다음이 영명 스님. 역시 비가 오는 밤에 불일암 주위에서 음독 자살을 기도한 젊은이 한 쌍 때문에 고생고생 하였고, 그 이후 공양주가 현장 스님에 이어 산매와 보살로 내려왔다. 나는 그 다음 공양주였는데 1980년 광주 민주 항쟁이 있던 그 해 여름이었다. 사복형사가 간혹 불일암 주위를 배회하고 몸을 사리는 젊은이들도 외부의 눈길을 피해 오고 갔다. 스님은 당시 여름 이가기를 ‘한중의 재’란 글에서 이렇게 쓰셨다. ”

“ 어제도 나는 부엌 바닥에 앉아 손칼로 대를 깎아 차 수저를 만들며 하루를 보냈다. ”

“ 어저께는 땅거미가 짙게 내릴 때까지 개울가에 흩어져 있는 돌을 주워다가 우리 불일(佛日)로 오는 가파른 길목에 총계를 놓기도 했었다. 요즘 아래 절에서 올라와 있는 지옥 스님과 함께였다. 단순한 노동은 육신의 건강보다는 포착한 정신상태를 위해서 필요한 동작이다. 이 여름은 즐픈 이런 일로 고통스러운 내출혈을 다스릴 것이다. <끝> ”

Advertisement for health products including Solhyosojungak (松酵素精液), Solseonshik (松仙食), and Ikshuhyeongjingo (익수영진고). The ad features a portrait of a man, a list of ingredients, and detailed descriptions of each produc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distributor, Hoesung Yangbang Hanbang Hospital.